

# 갤러리 엠나인, 채성필 신작 '물의초상' 추가로 소개



갤러리엠나인 개관전 1부에서 추가로 선보이는 채성필 작가의 신작 '물의초상' 시리즈 중 1점

지난 16일 개관한 갤러리 엠나인이 1부 초대작가 채성필의 신작을 추가로 선보인다.

이번에 추가로 소개되는 채성필 작가의 신작 '물의초상'은 밝고 경쾌한 물의 소용돌이, 청량한 색채와 천연안료가 주는 강한 기가 흐르는 것이 특징이다. 채성필 작가는 주로 대작을 제작하지만, 7점으로 선보이는 이번 '물의초상' 시리즈는 모두 50호 크기라는 설명이다.

'흙의 작가'로 명성을 쌓은 채성필 작가는 프랑스를 기반으로 한국과 유럽, 나아가 전세계에서 높은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개관전 1부에서 선보이고 있는 채성필 작가의 '만물상'은 흙이라는 영원불변한 재료로 동서양의 음양 오행을 화폭에 담아 매우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채성필 작가의 작품은 유럽과 아랍 왕실이 300여점 이상 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술계의 '큰 손' 프랑수아 피노를 비롯해 국내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배우 배용준, 김남주, 유호정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성필 작가의 '만물상'을 비롯해 신작 '물의초상'은 오는 8월 11일까지 갤러리 엠나인 개관전 1부 '시간 속 관조'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오는 7월 27일 오후 5시에는 네이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해당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다.

한편 8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진행되는 개관전 2부에서는 BTS 뷁가 소장해 화제를 모은 작품 '디어(deer)'의 신진 작가 김우진과 오브제와 팝 요소를 이용해 사과를 극사실주의적으로 표현하는 작가 민경숙의 전시가 이어질 예정이다.

장지현 인턴기자